

文獻調査法의 內容構造에 관한 考察*

金正昭**·朴後植**

〈目 次〉

- | | |
|-----------------------|-----------------|
| I. 緒 論 | 現狀 |
| II. 用語의 概念과 範疇 | V. 講座의 目標와 內容構造 |
| III. 文獻調査法 教育의 理念的 基礎 | 1. 講座의 目標 |
| 1. 理念的 問題 | 2. 講座의 內容構造 |
| 2. 意義와 必要性 | VI. 結 論 |
| IV. 文獻調査法 教育의 展開過程과 | |

I. 緒 論

本考는 基本的으로 文獻調査法의 教育目標와 內容構造를 밝히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教科目으로서의 名稱의 概念과 範疇를 밝히고, 教科目으로 開設되어야 할 必要性의 理念的 基礎를 살폈으며, 展開되어온 樣相과 現象을 概觀하였다. 이러한 副次的인 主題의 論述은 講座의 目標와 內容構造를 設定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理論의 土臺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國內에서 發表된 本考와 관련된 主題의 論文은 약 7~8篇이 있다. (1) 이들 論文들을 分析해 보면 그 內容은 대개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範疇로 大別할 수 있다. 첫째는 1960年代부터 1970年代에 걸쳐 발표된 論文들로서 文獻調査法이 正規教科目으로 開設될 必要性을 論한 것이고, 둘째는 外國에서의 이 分野의 實行略史를 概觀한 것이다. 셋째는 이 分野의 教育을

*本 研究는 1983年度 文敎部 學術助成 研究費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啓明大學校 社會大 圖書館學科 助敎授

(1) 先行研究의 結果는 本考의 論理展開過程에서 脚註形式으로 引用되고 있으며 끝에서 參考文獻으로 提示되어 있다.

위한 몇가지 方案에 대해 分析한 것이다. 그러나 共通된 內容은 正規教科目化의 價値에 대해서 모두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論議는 앞으로의 이 分野發展을 위해서 더 이상 有用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文獻調查法教育의 必要性이 提起된 이래 이미 20年 가까운 세월이 지났고,⁽²⁾ 그동안 發表된 研究成果로 인하여 이미 國內의 7個大學에서 講座開設이 現實化되었기 때문에 必要성과 方案의 提示는 哲學的基盤을 內包하지 않는한 現在로서도 만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研究方向은 보다 具體的인 것으로서 文獻調査 및 이와 관련된 각종 教育方案의 有用성을 檢討하고 現狀을 分析하여 理想的인 方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各 方案의 教育目標을 設定하고, 이에 따라 教育시켜야 할 內容의 構造를 設定하는 過程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教育의 目標과 內容構造를 設定하는 일은 正規教育課程化 했을 경우 教育行爲 이전에 先行되어야 할 要素이다. 왜냐하면 教育의 目標設定은 學習者가 그 教科를 이수하고 난 다음 어떤 '行動의 變化'를 보일 것이라는 豫想결과를 感知한 상태에서 가능하며, 學習의 內容은 이 目標을 達成시키는데 필요한 具體的인 學習經驗의 論理的 構造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問題에 대한 明白한 陳述이 前提되지 않는 教育行爲는 方向感覺을 상실한 價値없는 教育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背景에서 本考는 文獻調查法 講座에서 어떠한 教育目標을 達成할 것인가? 어떠한 內容을 어느 程度로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解答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따라서 教授方法이나 學習課題, 各 單元의 時間配當, 評價등에 관한 問題는 本考에서 意圖하는 바가 達成될 때 이를 바탕으로 하여 分析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의 課題로 미루기로 한다.

(2) 이 期間에 대한 言及은 1965年 발표된 安永柱의 論文中에서 提案된 內容을 基準으로 하였다. 安永柱. 大學에 있어서 大學圖書館奉仕의 効果에 관한 研究, 서울, 延世大大學院, 1965(碩士學位論文)

II. 用語의 概念과 範疇

文獻調査法은 傳統的으로 사용되어 온 圖書館教育(library instruction)의 새로운 表現形式으로서 情報과 文獻 또는 文獻속에 내포된 個別的인 內容을 調査하고 探索하는 다양한 方法에 관련된 광범한 活動들을 포함한다.

圖書館教育이란 用語는 원래 두가지의 意味를 포함하고 있다. 그 하나는 圖書館을 통하여 開發되거나 成就되는 教育으로서 自己教育(self-education)을 의미하며, 다른 하나는 圖書館을 利用하는 方法에 대한 指導로서 보통 圖書館利用指導라고 불려왔다.

첫째의 教育은 圖書館의 本質的 機能인 教育的 機能과 不可分の 關係를 지니고 있다. 古代나 中世圖書館의 경우는 제외하고라도 圖書館이 一般市民과 關係를 맺어 公共圖書館이 新設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 18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또한 學術活動이 再編되고 教授法이 改善되어 圖書館이 教育活動과 不可分の 關係를 맺게된 이래로 圖書館의 教育的 機能과 司書의 教育的 役割은 強調되어왔다.⁽³⁾ 그러나 教育的 機能의 明確한 限界는 司書가 ‘가르치는 行爲’를 직접 實行하는데 있지 않다. 自己教育(self-education)은 이용자들의 個別化 學習(in dividualized learning)의 結果로서 나타날 뿐이다. 즉 圖書館利用者는 司書의 가르침을 받아 自己教育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圖書館이 베푸는 다양한 知的인 향연에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自己教育을 성취하게 된다.⁽⁴⁾ 따라서 圖書館教育이 의미하는 첫번째의 概念은 圖書館을 통해서 利用者 스스로 얻을 수 있는 教育的 效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圖書館利用指導(Instruction of the books and library)는 圖書館의

(3) Dana, John C. "Misdirection of effort in reference work" *Public Libraries*, Vol. XVI, 1911. p. 109.

(4) teaching library 즉, 가르치는 圖書館이란 教育道具(instructional tool) 혹은 學習場(learning workshop)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Passarelli, A. B., and Abell, M. D. "Programs of undergraduate libraries and problems in educating library users" In: *Educating the Library User*. ed by J. Lubans. New York. Bowker, 1974, p. 128.

4 도서관학논지

組織構造와 活動內容, 情報과 文獻의 類型, 特性 또한 이들을 利用하는 知識과 技能및 態度등 利用能力의 開發을 위한 指導를 내포하고 있다.⁽⁵⁾ 이러한 活動들은 모든 類型의 圖書館들에서 公式的이건 非公式的이건 또는 部分的이거나 綜合的이거나 간에 實行되어 왔다.

예컨대 美國圖書館協會「參考業務基準統計委員會」에서 成案한 參考業務의 細部的인 內容중에 圖書館利用指導의 形成에 關係 論及된 部分이 있다. 여기에는

非公式指導	}	目錄의 利用指導
		資料의 利用指導
公式的指導	}	學級單位의 指導
		集團指導
		教科指導

圖書館便覽, 利用案內書의 作成, 配布⁽⁶⁾ 등으로 區分하여 內容을 記述하고 있다. 非公式指導는 주로 個人을 對象으로 한 非定規的이며 斷片的인 內容의 指導를 의미하고, 公式的 指導의 學級·集團指導는 圖書館의 活動진반을 포함하나 皮상적인 오리엔테이션 형식의 指導가 主宗을 이룬다. 前者가 모든 類型의 圖書館에서 共通的으로 이루어지는 對面教育인데 비해 後者는 주로 教育機關의 圖書館에서 新入生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간단한 說明形式的 講義와 現場學習을 併行한다. 이들 兩者는 그 活動의 主體가 모두 圖書館이라는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特性을 찾을 수 있다.

한편 公式的 指導의 教科指導는 이상의 活動들에 대한 否定的 觀點(効率性에 대한)에서 出發한다. 즉 大學(學校)의 正規教育課程속에 圖書館利用指導가 포함되는 것이다. 이는 前述한 方法들이 극히 皮상적이어서 效果가 적으며,⁽⁷⁾ 根源的으로 광범한 知識과 情報의 世界에 接近하는 方法이 단지 몇

(5) 北島武彦, 圖書館奉仕, 東京, 理想社, 昭和 50 (1975). p. 202.

(6) Shores, Louis. "The measure of reference" *Southeastern Librarian*, Vol. 11, Winter, 1961. p. 300.

(7) 圖書館利用 orientation에 대한 否定的 結果는 羅誠實氏의 論文에서 잘 지적되고 있다. 羅誠實氏, 大學教養課程에 있어서 圖書館教育의 必要性에 관한 研究, 서울, 연세대 教育大學院.

시간의 教育만으로는 이루어 질수 없다는 判斷에서 비롯되고 있다. 前述한 方案들이 모두 圖書館이 主體가 되어 實行되나 이 경우는 司書들에 의해 행해 질 수도 있고, 教授陳에 의해 행해 질 수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圖書館教育이란 두가지의 意味를 포함하고 있으나 前者의 自己教育은 圖書館 특히 教育的 性格을 지니고 있는 圖書館들이 指向할 하나의 最終目的이며, 後者の 圖書館利用指導는 이를 效率적으로 實踐할 수 있는 하나의 手段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圖書館利用指導란 用語는 그 自體로서 制限點을 가지고 있다. 學生들은 生涯를 통해 自己教育을 實現시킬 方法들에 대해 教育을 받아야 한다. 生涯教育이나 自己教育을 위한 最善의 機關이 圖書館임을 否定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은 明白하다. 學生들은 다양한 情報나 資料의 類型과 特性을 알고 그것이 生産, 配布되는 基本過程을 理解하며, 자신이 원하는 情報를 調査하고 探索해내는 다양한 方法과 技術에 대해 教育을 받아야 한다. 調査方法과 技術을 위한 典型이 圖書館活動으로 代表되지만 圖書館을 통하지 않는 副次的인 調査·探索活動도 많이 있다. 本考에서는 이러한 연유로 文獻調査法이란 用語를 사용했다. 文獻調査(literature search)는 廣意로는 文獻에 관한 情報 혹은 그 文獻에 內包되어 있는 情報에 관해서 組織적으로 調査를 進行해 나가는 것을 말하며⁽⁸⁾ 文獻探索이라고도 불려진다. 여기서 말하는 文獻은 筆寫 또는 印刷된 文書의 總稱이기 때문에 圖書館이 주로 수집대상으로 하고 있는 記錄情報이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一般圖書館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組織적인 文獻調査活動을 文獻調査라고 해도 좋으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불려오지 않았다.

그러나 專門圖書館과 情報서비스 機關에서는 他調査業務와 區分할 目的으로 文獻을 利用해서 각종 情報를 探索하는 活動을 文獻調査라고 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文獻調査를 專門圖書館에서 행해지는 특수한 서비스로서

1973. pp.24~40 (碩士學位論文).
 (8) 長澤雅男. 參考調査法. 東京, 理想社, p.177.

6 도서관학논집

보다 限定된 意味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미국도서관협회의 用語集에서는 “특히 專門圖書館에 있어서 어떤 特定問題 혹은 主題에 關해 印刷된 資料를 구해서 해제하는 組織的이고 광범한 探索”(9)이라고 定義하고 이것은 參考奉仕와 研究調査의 中間의 位置에 놓인다고 하였다.(10) 그러나 오늘날 文獻調査라고 하는 用語는 모든 圖書館의 文獻探索活動에 一般的으로 적용될 뿐 아니라 研究者들의 個人的인 文獻探索活動에도 광범하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文獻調査法 教育이란 文獻에 관한 情報 혹은 그 文獻에 內包된 情報를 探索하기 위해 組織的으로 調査를 進行시키는 方法과 技能을 研究者(調査者) 스스로 터득하도록 하는 大學의 正規的인 教育課程의 一部로서 指導하는 것을 말한다.

Ⅲ. 文獻調査法 教育의 理念的 基礎

1. 理念的 問題

William S. Learned는 모든 人類의 知識을 增進시키는 文明의 進歩에는 知識의 發見과 傳達이라는 두가지 作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兩者는 相應하고 相伴되게 作用하여 結實을 맺었던 知識이 골고루 전달되면 비로소 새로운 知識을 낳는다. 이러한 知識의 具體的 表現物이 記錄情報(資料)이며 이의 傳達을 위한 주된 機關이 圖書館이다.

일찍이 知識의 량이 적고 記錄情報의 生産量이 적었던 時代에는 個人이 얻을 수 있는 情報의 폭이 비교적 넓어 圖書館利用者들에게 文獻을 調査·探索하는 方法과 技術을 가르칠 필요가 없었다. 더우기 知識은 上流社會의 專有物이고 그들은 스스로 敎養과 知識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그들에게 敎育

(9) *ALA Glossary of Library Terms*, Chicago, A. L. A., 1943, p. 84.

(10) *loc. cit.*, Harrod의 用語集에서도 同一한 表現이 發見된다. Harrod, Leonard M. *The Librarian's Glossary*, 4th. ed. Londre Deutsch, 1977, p. 511.

이란 것은 무의미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專門化・細分化 되는 學問의 樣相과 그 結果 쏟아져 나오는 각종 記錄情報의 量的 肥大現象으로 인해 研究者 個人的인 努力으로 探索할 수 있는 能力의 限界를 가져왔다.

만일 생산되는 情報의 단지 몇%만이라도 그것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檢索할 수 있는 方途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찾아낼 수 없다면 그 情報는 生産과 同時에 死藏되는 結果를 가져온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圖書館側으로서도 어떤 對策의 講究가 必然的이었다.

이 對策에는 두가지 方案이 考慮될 수 있다. 그 하나는 利用指導教育으로서 利用者들로 하여금 스스로 도서관과 문헌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教育을 시키는 일이다. 이 方案은 그 당시 司書들의 知識水準이나 數的인 面에서의 不利한 여건하에서 취할 수 있었던 最善의 것이었다.⁽¹¹⁾

다른 한가지는 情報를 필요로 하는 利用者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情報를 司書가 찾아서 최종결과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利用者들이 해야 할 調査・探索活動을 司書가 代行해 주는 것으로서 司書가 利用者들 직접 指導하는 개념은 배제된다. 이러한 機能은 利用指導教育의 效果에 대한 회의적 반응으로부터 起因되었으며 1930년대부터 대두되기 시작했다.⁽¹²⁾

前者 즉, 教育的 觀點은 圖書館의 基本的인 機能의 하나인 教育的 役割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保守的 理論(conservative theory)이라고 하며, 後者 즉, 情報提供의 觀點은 調査의 主體를 司書에게 맡기는 것으로서 進步的 理論(progressive theory)이라고 한다. 그러면 다음에서 이 兩者의 概點을 比較 分析해 보고 이 結果를 토대로 大學에서의 文獻調査法 教育의 論理的 根據를 究明해 보기로 한다.

保守的 理論의 本質은 利用者教育에 있다. 즉 도서관 및 자료이용의 主體와 責任을 利用者에게 두고 그들이 이를 잘 利用할 수 있도록 司書가 教育

(11) 利用者에 대한 計劃的 協助는 Samuel S. Green 이 1876年 전국도서관인 연차총회의 講演을 통하여 최초로 始圖되었었다. Green, Samuel S. "Personal relations between librarians and readers" *Library Journal*, Vol. I, Oct. 1876. pp. 74—81.

(12) 情報提供의 責任에 대한(司書의) 論議는 1930年 James Wyer의 著述에서 비롯된다. Wyer, James. *Reference Work*. Chicago. A. L. A., 1930. p. 4.

을 시키는 것이 이 理論의 核心이다. 이 理論이 主唱되었던 1800년대 후반부터 進步的 理論이 대두될 때까지 教育的 機能의 必要性에 대한 司書들의 信念은 대단히 강렬했다. 司書들은 그들 스스로 圖書館을 ‘市民의 大學’이라고 불렀으며 자신들을 教育者라고 自認할 정도였다.⁽¹³⁾

保守的 理論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論理的 根據로서 그들의 觀點을 正當化시키고 있다. 첫째는 理念的인 것으로서 확대된 協助는 自己教育을 방해하며 利用者 스스로에게 害가 된다는 점이다.⁽¹⁴⁾ 즉 個人的인 調查研究의 經驗으로부터 얻어지는 利點을 強調하는 것으로서 調查의 ‘過程’에 內在되어 있는 여러가지의 教育的 效果를 결코 輕視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現實的인 問題로서 司書의 時間은 제한되어 있고 要求는 너무 많으며, 또한 司書의 資質이 高度한 質問에 능숙히 대처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情報을 직접 제공해 주는 확대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¹⁵⁾

이상 두가지 論據를 보건해 教育的 見解는 그 正當性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問題는 여전히 提起된다. 즉 利用者들에게 약간의 利用指導教育을 행함으로써 情報의 探索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으나 分類와 目錄의 體系를 理解시키고 索引의 調查方法을 理解시킨다고 하여 오늘날 복잡하기 그지없는 情報를 探索하는데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겠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 制限性은 짐작이 간다. 그러나 이러한 問題性은 그때 그때의 狀況에 따른 斷片的인 教育이나 新入生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 教育과 같은 상황에서 제기될 수 있지만 利用指導教育을 正規教科目化하여 教授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進步的 理論은 情報提供에 核心을 두는 것으로서 圖書館이 利用者의 諸 要求에 최대한의 관심을 쏟아 모든 質問者를 만족시키는 方法과 手段을

(13) Dana, John C. "Misdirection of effort in reference work" *Public Libraries*, Vol. XVI. 1911. p. 109.

(14) Rothstein, Samuel. *The Development of Reference Service*. Chicago, A. C. R. L. 1955. (ACRL Monograph Series No. 14) p. 42.

(15) *loc. cit.*,

발전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즉 調査의 主體와 責任을 司書에게 지우는 것으로서 教育的 意味를 배제한다.⁽¹⁶⁾ 이 理論이 대두된 背景은 利用者가 情報을 調査·入手하는 것보다 專門家인 司書가 代行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¹⁷⁾

이 理論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自動車整備工場과 圖書館에서의 서비스活動을 비유적으로 說明하면서 利用者가 원하는 것은 情報自體이지 教育은 아니며, 圖書館奉仕의 發展過程上 最大奉仕를 指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 理論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面에서 現實性이 없다. 첫째는 모든 利用者, 모든 類型의 圖書館에서 적용할 수 있는 規範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教育的 性格을 지니고 있는 大學·學校圖書館에서의 教育的 價値를 輕視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現實적으로 實現不可能한 하나의 理想的 性格이 강하다는 점이다. 즉 이 理論의 實現을 위해서는 司書의 資質과 人的資源이 保障되어야 하며, 地域, 國家 나아가서는 世界를 연결하는 圖書館協力시스템이 前提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이러한 前提의 要素의 成就가 요원하다.

이상 두가지 理論의 本質과 論據, 問題點 등을 살펴본 결과 大學에서 文獻調査法의 教育을 施行해야만 하는 教育學的 論理는 自明해진다. 즉 保守的 理論도 進歩的 理論도 어느것 하나 모든 類型의 利用者와 圖書館에 적용시킬 수 없는 難點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一般利用者 또는 大學生을 對象으로 하는 大學圖書館에서는 당연히 教育的 機能이 強調되어야 하며 學者나 專門家を 주된 利用對象으로 하는 學術·專門圖書館에서는 進歩的 理論이 적용될 수 있다.

(16) Katz, William. A. *Introduction to Reference Service Vol. II. Reference Services*. N.Y., McGraw-Hill, 1969. p.29.

(17) Khandwala, Vidyat. "The role of reference service." In: *The Librarian and Reference Service*, ed. by Arthur R. Rowland. Hamden, Conn., The Shoe String, 1977. p.38.

특히 大學에서는 生涯教育을 成就하기 위한 自律學習의 達成을 위해 學生 스스로 調査하고 研究하는 過程속에서 얻어질 수 있는 教育的 價値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體系的인 文獻調査法 教育은 論理的 正當性을 가지는 것이다.

2. 意義와 必要性

文獻調査法 教育의 必要性은 前述한 바와 같이 學生스스로 주어진 問題에 대해서 判斷하고 調査하며 解決하는 過程을 통해서 얻어지는 自律學習의 成就에 있다. 이러한 自律學習의 成就是 오늘날 우리나라의 大學들이 當面한 共通的인 目標의 하나이다.

이러한 目標의 達成을 위해서 政府次元에서 1970년대 초부터 高等教育 改革이 始圖되기도 했다. 이 改革의 特性⁽¹⁸⁾은 여러가지로 記述될 수 있겠으나 課題中心의 教育方法을 통한 自律學習의 成就에도 큰 意味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卒業學點을 160學點에서 140學點으로 引下하였다. 이는 종래까지 주종을 이루던 教授中心의 注入式教育方法에서 脫皮하여 많은 量의 課題를 이행함으로써 學習의 量을 훨씬 더 늘려 보자는데 目的이 있었다. 이것은 종래의 講義室中心에서 벗어나 學生 스스로 文獻을 調査하고 利用하며 分析 評價함으로써 學習의 效率을 培增시키는 創意的이고 積極的인 教育에로의 移行을 意味한다.

그러나 改革이 실시되고 많은 연륜이 지났으나 이 本質的인 効果는 제대로 實現되지 못하고 있다. 그 理由는 學生들의 學習態度와 方法에서 一端을 찾을 수 있다.

課題學習이 強調되기 전의 學生들의 學習은 教授의 講義와 指定된 教材에 주로 의존해 왔다. 대부분의 경우 공부한다는 것은 어떤 主題에 대하여 基本的인 知識을 教授로부터 注入式으로 보급받고 한 學期에 한 두번 주어지

(18) 改革의 內容은 卒業學點引下외에도 教養教育의 強化, 系列別모집, 能力別 卒業制度, 複數 專攻, 卒業論文制, 課題學習등의 여러가지가 있으나 自律學習의 成就와 관련있는 것은 能力別 卒業, 卒業論文, 課題學習 등이다.

는 시험때에 그 知識들을 암기하는 受動的이고 皮相的인 方法을 意味해 왔다. 이러한 學業方法은 學生들에게 배움의 세계에 넓고 깊게 도전하도록 흥미와 자극을 주지 못하였다. 또한 教材이외의 다양한 文獻들을 읽어서 포괄적이고 깊이있는 知識을 얻은 후 종합하여 다시 分析하고 評價할 수 있는 思考力과 批判力을 길러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배움의 기회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깊은 思考力과 냉철한 批判力의 결여는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創意力을 키울 터전을 닦지 못한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19)

이러한 방법으로는 오늘날 '정보폭발'이라고 일컬을 만큼 多種, 多樣하게 생산되는 수많은 文獻情報에 접근하여 새로운 知識을 발견하고 分析 評價하여 새로운 解釋이나 結論을 내릴 수 있는 創意的인 教育의 實現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結果의 招來는 大學入試라는 當面課題를 解決하기 위한 中等教育에서의 構造的 모순에서 비롯되지만 大學에서 조차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努力을 별로 기울이지 않았다는 데서 더 큰 問題性을 발견하게 된다. (20)

大學에 入學한 學生들은 자신이 전공하는 主題分野의 다양한 文獻들을 多角的으로 調査하고 體系的으로 蒐集하여 學習과 研究에 活用하는 方法에 대해서 한번도 教育을 받아보지 못하였다. 많은 大學院 學生들 조차도 그들의 專攻分野에 있어서 기본적인 單行本, 研究論文, 參考資料, 政府刊行物, 各種報告書 등을 調査하는 方法을 모르고 있으며, 자기가 研究하고자 하는 分野에 어떠한 叢誌, 索引, 抄錄등의 기본적인 2次資料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를 探索하는 方法도 모르고 있다는 事實이 文獻調査法 教育의 必要性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새로운 教育方法, 즉 課題의 이행을 통한 自律學習의 效率的 實現은 急進

(19) 신숙원, "도서관과 문헌이용지도," 도협월보, Vol. 18, No. 1, 1977, p. 14.

(20) 一例로 學生들에게 주어진 課題의 性格에 대한 한 調査結果는 "創意性과 應用能力을 살려서 研究하는 것"이 전체의 28.9%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다수가 "배운것의 반복연습, 책의 한 部分要約, 參考書를 읽고 要約하는것"이었다고 밝히고 있어 과거의 課題學習이 學生들의 創意的인 教育을 誘發시킬 수 없었음을 立證한다. 姜宮弼, 韓國大學圖書館學科의 教育課程에 관한 研究, 서울, 高麗大教育大學院, 1970. (碩士學位論文) p. 98.

의으로 증가되고 多樣化되는 情報과 知識을 體系의으로 수집하여 이용가능한 상태로 整理해 놓은 圖書館과 圖書館資料의 效果的인 利用을 前提로 한다. 이는 大學生活을 보다 유익하게 영위하도록 하고 學問世界에 入門하는 첫 단계로서 중요한 뿐 아니라 大學을 마친 후 一般市民이 된 후에도 自律學習을 지속시켜 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상에서 文獻調査法 教育의 必要性에 대해서는 충분한 論證이 되었으나 이를 어떠한 方法으로 施行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생기게 된다. 이를 위한 方案으로는 新入生을 대상으로 한 圖書館利用 오리엔테이션과 特講形式 및 利用案内冊子の 配付 또는 正規教科目化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圖書館利用 오리엔테이션은 보통 新入生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며 대개 司書에 의한 利用上의 간략한 소개와 見學을 겸하게 된다. 그러나 이 方法은 大學圖書館의 必要性을 인식하기도 전에 일뿔뿔한 기분에서 행해지며 時間이 제한되어 있어 各 組織構造와 活動內容만을 소개하는 皮相的인 內容이 되고 만다.⁽²¹⁾ 따라서 오리엔테이션 時間을 더욱 늘린다 하더라도 가르쳐야 할 內容이 너무 많아 効果는 여전히 의심이 간다.

한편 文獻調査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學生들을 對象으로 하는 特講形式도 오리엔테이션과 유사한 結果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여진다. 筆者가 근무하는 大學에서 1982學年度 1學期에 文獻調査法 特講을 開設(社會科學大學 學生 對象 50명 受講)하여 10時間동안 集中的인 教育을 시켜본 결과 대부분의 學生들이 教育의 效果는 認定하나 專門用語를 理解하고 간단한 資料探索 方法을 익히는데 불과하다고 陳述하였다.⁽²²⁾ 즉, 알아야 할 範圍는 많은데 제한된 時間에 너무 압축된 內容을 履修하여 受講 당시에는 理解할 수 있었으

(21) 오리엔테이션의 효과에 대한 한 調査結果는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 전체 응답자의 5.53%에 불과하며 이는 低學年으로 갈수록 더욱 낮아져 1학년의 경우엔 1.16%만이 肯定的反應을 보였다. 權誠實, *op. cit.*, p. 32.

(22) 이 特講을 위해 3명의 教授가 동원되어 特講의 意義와 目標, 大學圖書館의 組織과 活動, 目錄類를 利用한 調査方法, 2次 資料를 통한 調査方法, 基本參考圖書의 案内 등에 대해 講義中心으로 가르쳤으나 時間의 부족을 결감하였다.

나 內容을 곧 잊고 만다는 것이 共通된 見解였으며 이를 論文作成法등과 관련하여 正規學科目으로 開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意見을 보였다.

미국의 경우 많은 大學들이 必要한 경우 이러한 方法을 正規敎科目的의 代案으로 活用하고 있으며 年次的으로 늘어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²³⁾고 하나 깊이있게 다룰 수 없는 難點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方法은 文獻調査法 敎育全般에 대해서 보다는 오히려 學科別 敎授들의 要請에 의해 해당분야별 書誌(主題別 書誌)를 敎授하는 形式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利用案内冊子 및 圖書館便覽등을 作成하여 學生들에게 配布하는 利用敎育方案은 흔히 오리엔테이션과 特講의 補完的 手段으로 活用되는 경우가 많고 利用敎育의 獨自의인 媒體로 活用되는 例는 드물다. 이 方法을 活用할 경우 學生들의 學習動機를 誘發하기가 어렵고, 動機誘發이 가능하더라도 專門的인 用語에 대한 理解가 어려워 獨自의인 敎育手段은 될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²⁴⁾

이상의 結果를 보건대 文獻調査法 敎育을 위한 方案은 正規敎科目化하는 것이 最善의 方策으로 보여진다. 正規敎科目化하는 目的은 충분한 시간에 걸쳐 體系의으로 敎育을 시킴으로써 學習과 研究過程에 필요한 資料를 효율적으로 調査, 利用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²⁵⁾

이 방법은 그간 실시되어온 오리엔테이션 形式의 敎育에 대한 非效率的 觀點에서 起因되었다.

실제로 오리엔테이션 形式의 敎育에 대해서 學生들은 약 95%가, 司書들은 약 85%가 충분치 않다는 否定的 見解를 보였으며⁽²⁶⁾ 최근 강혜영씨가 司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거하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강화로서 충분하다는 見解는 전체의 5%에 불과하고 敎養科目으로 正規敎育課程化되

(23) Goggin, Margaret K. "Instruction in the use of the university library" In: *Educating the Library User*, ed. by J. Lubans, N.Y., Bowker, 1974, pp.107-108.

(24) 실제 각 대학에서 작성한 利用案内書는 대체적으로 目錄을 통한 所藏資料의 檢索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初步的인 探索技術을 習得하기에 알맞도록 되어 있다.

(25) 權文英, 大學에서의 圖書館敎育 프로그램에 관한 研究, 서울, 梨花女大 大學院, 1979, (碩士學位論文), p.21.

(26) 羅誠實 *op. cit.*, p.32, 92

이야 한다는 見解에 95%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⁷⁾ 이러한 反應의 結果는 그동안 각 大學에서 별로 效果가 없는 일에 불필요한 時間과 努力의 낭비를 기울여 왔다는 사실을 反證하며 體系의인 文獻調査法 講座開設의 必要性을 단적으로 立證한다.

그러나 이 科目을 教養科目의 하나로서 講義할 때는 몇가지 前提되는 要素의 解決이 있어야 한다. 첫째는 教授要員의 確保이다. 圖書館學科가 設置되어 있는 大學에선 거의 문제성이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 문제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現職司書가 담당함으로써 利用技術의 實際的인 効用性을 增大시킬 수 있는 長點을 가지고 있으나 教育目的과 教授方法에 대한 認識이 부족한 편이며, 大學當局者들도 現職司書에게 正規科目의 講義를 맡기는 문제에 대해서 不安을 表하게 될 것이다.⁽²⁸⁾

두번째는 圖書館이 지질한 水準에 도달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文獻調査法 教育은 그 性格上 理論講義와 現場講義 및 實習이 併行되어야 한다. 따라서 圖書館의 諸 시스템이 적절한 水準에 있지 않고 특히 資料가 乏乏하다면 效果는 半減된 것이 명백하다.

세번째는 大學行政當局의 理解와 協力이 必要하다는 점이다. 오늘날의 각 大學 教養科目學點은 대체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特定敎科科目을 追加하는 것이 容易하지 않다. 따라서 大學行政當局이나 科目開設의 權限을 가지고 있는 委員會가 이러한 敎科科目의 開設必要性에 대한 확실한 認識과 協助가 수반되지 않으면 教養科目으로서의 開設은 不可能해 진다.

Ⅳ. 文獻調査法 教育의 展開過程과 現狀

우리나라에서의 ‘體系의인 文獻調査法 教育’에 대한 論議와 提案은 1960

(27) 강혜영.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의 利用指導에 관한 研究” 도서관, Vol.35, No.5, 1981. p.43.

(28) 司書가 이 講座의 責任을 맡는 問題에 있어서 現職司書의 대부분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司書가 教授陣으로서의 實質과 責任을 가져야하며 大學측으로부터 그러한 地位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大學內的 教育計劃에 참여해야 하며 계속적으로 다른 教授陣과 同志의인 交誼를 가지고 共通의 관심사에 대해 相互協力하는 機會를 가져야 하나 現實의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年代 中盤부터 비롯된다. 1965年 安永柱氏는 그의 論文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教授와 圖書館間의 有機的인 關係의 缺如, 理解不足, 講義方法의 非圖書館化에 따라 大學圖書館 本然의 目的과 機能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29)고 지적하고 大學生들의 圖書館利用方法, 理解度調查의 統計結果를 토대로 圖書館利用法에 관한 學科目을 正規課程化하여 學生들에게 履修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30)

이 提言은 비록 文獻調查法 教育의 必要性만을 위한 研究結果로부터 導出된 結論은 아니라 할지라도 正規教育課程속에 포함된 教育을 주장한 최초의 文獻으로서 意義를 지닌다.

또한 1970年엔 姜富弼氏가 그의 論文에서 우리나라 大學圖書館學科의 教育課程에 대해 論하고 “올바른 圖書館利用과 圖書館의 各種 資料가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감안하여 圖書館學 講座를 開設해서 書誌 및 情報資料의 利用能力을 量的으로 부여하는 동시에 圖書館學科가 설치되어 있는 大學에서도 圖書館學科目을 教養課程으로나 副專功科目으로 開設하여 他學科 學生들이 들을 수 있는 方案이 마련되어야 한다”(31)고 하여 역시 利用指導教育을 正規課程化할 것을 提案하고 있다.

體系的인 文獻調查法 教育의 必要性은 이 당시 研究者들만의 關心事는 아니었던 것 같다. 1970年 現職司書들의 發言臺 역할을 하고 있던 全國圖書館大會에서는 이 大會의 決議事項의 하나로서 文敎部에 제출하기 위한 “全國大學에 圖書館學講座 設置要望”이 採擇되기도 했다. 이는 그 당시 司書들이 大學教育의 효율적 성취를 위해선 大學生 個個人의 文獻利用能力이 必須的인 前提가 된다는 것을 깊이 認識한 結果에서 나타난 集約된 意見이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1972年末에는 이 分野의 專門的인 調查研究가 羅誠實氏에 의해 이

(29) 安永柱. *op. cit.*; pp. 108—110.

(30) *Ibid.*, pp. 92—94.

(31) 姜富弼. 韓國大學圖書館學科의 教育課程에 관한 研究. 서울, 高麗大 教育大學院, 1970. (碩士學位論文). p. 142.

루어졌다. (32) 이 研究에서는 전국 12개 大學의 學生 1,287명과 司書 71명을 對象으로 하여 現在 實行중인 다양한 圖書館教育 方案들에 대해 實態를 調査하고 現行的 여러가지 方案 즉 오리엔테이션이나 利用案内冊子 등에 의한 教育이 별 効用性이 없다는 것을 立證하고 있다. (33) 아울러 教育의 効率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教養科目의 一部로서 正規教科目化하는 것이 절대 必要하다는 結論을 내리고 있다.

1960年代 중반에서부터 1970年代 초반에 이르기까지의 이러한 一聯의 움직임은 體系的인 文獻調査法 教育의 必要性을 잘 代辦해 주고 있으나 그 당시 大學들은 이러한 問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사실 이 당시 大學의 무관심은 이러한 教科目的 開設 必要性에 대해서 無知했던 面도 있으나 더 根源的인 問題는 大學圖書館이 大學教育과 學術活動의 中心地가 되지 못했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圖書館을 통한 研究의 理念이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했으며, 教授方法은 여전히 講義中心式이어서 圖書館의 存在價値가 認定을 받을 여지가 없었다. 또한 圖書館은 圖書館대로 施設과 資料가 落後하고 빈약하여 教授들의 關心의 對象이 되지 못했고 司書의 資質도 낮고 人員도 충분치 못해 圖書館이 진정한 教育과 研究活動의 同伴者가 될 수도 없었다. 이러한 現實의 상황하에서 비록 體系的인 文獻調査法 教育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效果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으며 오히려 圖書館의 빈약성을 드러내는 結果가 되어 圖書館에 대한 不信을 加重시키는 바라지 않는 效果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1972年 6月末 確定 發表된 大學教育改革案은 大學의 既存要素에 많은 變化를 要求하기에 이르렀다. 이 改革案중 教授方法의 改善과 課題中心教育은 必然的으로 大學圖書館과 教育을 關聯되게 만들었으며 結果的으로 大學圖書館의 質的 量的인 充實을 要求하게 되었다. (34) 이러한 여건의 變化

(32) 羅誠賢. 大學教養課程에 있어서 圖書館 教育의 必要性에 관한 研究. 서울,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1972. (碩士學位論文).

(33) *Ibid.*, p. 32, 44.

(34) 이 問題에 관해서는 다음 文獻이 비교적 폭넓게 다루고 있다. 한상완, “대한교육개혁과 대학도서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도열월보*, Vol. 27, No. 9, 1972. pp. 18-27.

는 비록 外部의 힘에 의한 것이긴 하나 大學圖書館의 역할을 再認識시키는契機가 되었고 아울러 體系的인 文獻調査法 教育을 주장할 수 있는 動機를 부여하기에 충분하였다.

이러한 客觀的 與件의 成熟으로 1975年 2學期에 처음으로 西江大學校에서 「圖書館利用法」이라는 科目을 教授選擇科目으로 開設하여 全學年을 대상으로 매주 1時間(1學點)씩 講義하기에 이르렀다. 이 實驗的 科目은 이수한 學生들의 反應이 매우 좋아, 1977學年度부터는 每學期에 開設하고 2學點 2時間으로 늘렸으며 최근에는 受講學生이 늘어 4 section으로 講座를 開設하고 있다고 한다.

이 科目을 新設하여 講義를 담당한 申숙원 敎수의 회고에 의하면, 첫 학기에는 많은 學生들이 ‘공부하기 쉬울것 같아서’ ‘학점수가 모자라서’ ‘이상한 이름을 가진 과목이어서’ 등의 소극적인 動機에서 受講하였으며 敎科內容에 관해서도 圖書館과 資料利用에 대하여 특별히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의아해 한 학생들도 많았다고 한다. 그후 학기말에 이 科目에 대한 評을 제출토록 하였는데 처음의 태도와는 달리 많은 學生들이 올바른 圖書館利用이 깊이있는 공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실제로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속제가 꼭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³⁵⁾

한편 西江大學은 이 講座의 效率性을 期하기 위해 現在는 2學年 이상으로 受講對象을 제한하고 있으며 高學年을 위해 별도의 「主題別書誌」를 開設할 예정으로 있다고 한다.

西江大學校에서 開設한 「圖書館利用法」이란 講座는 體系的인 文獻調査法 教育을 위한 最初의 試圖⁽³⁶⁾로서 이의 成功事例은 이 分野의 教育의 확대를 위해 여러 大學들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진다. 이후로 몇몇 大學들에서 西江大學校의 先例를 따랐기 때문이다.

(35) 申숙원, *op. cit.*, p.14.

(36) 여기서 最初의 試圖란 용어를 쓴것은 이전의 圖書館學講座, 예를들면 1955年 梨花女大에서 敎養科目으로 開設한나 있는 「圖書館學概論」등과 같은 學問的 概論이 아닌 순수한 文獻및 圖書館 利用教育의 試圖를 意味한다.

예를 들면 德成女大에서는 1980년부터 이 과목의 必要性을 인정하여 「圖書館利用法」이란 강좌를 개설하였고, 中央大學校에서는 1980年 2學期부터 圖書館學科의 專攻教育課程속에 「文獻利用法」이란 講座를 포함시켰다. 이는 他學科 2學年 이상의 學生을 對象으로 開設되는 것으로서 教養科目 속에 이 講座를 포함시키는 것이 어려워 취해진 조치였다. 또한 同年 大田의 한남대학에서도 「圖書館學概論」이란 科目名(2學點教養選擇科目)으로서 文獻調查法 教育을 시행해오고 있고 世宗大學에서도 1982年부터 每學期 「圖書館利用法」(1學點)을 教養選擇科目으로 開設하고 있다. 그리고 最近인 1983年 1學期부터 明知大學에서도 「文獻利用法」(3學點)을 教養選擇科目으로 채택하여 講義를 해오고 있으며 韓國神學大學에서도 이 講座가 開設되어 있다고 한다.

1970年代 中반 西江大學에서 첫 開設되기 시작한 體系의인 文獻調查法 教育은 이제 그 실시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特記할 만한 사실은 現在 開設되고 있는 大學 7個中 최초로 正規敎科目化한 西江大學을 포함하여 3個大學이 圖書館學科가 設置되어 있지 않는 大學이란 사실이다. 이런 觀點에서 이 分野의 先導的 역할을 담당하여 온 西江大學의 成功事例는 특히 圖書館學科가 設置된 大學들의 촉매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신숙원 교수의 報告記에 나타난 “「圖書館과 文獻利用法」 科目이 필요하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에 관해서 調查하고 研究한 結果를 學校 行政關係者들에게 알리고 學校新聞이나 기타 學術誌에 發表하여 이에 대한 새로운 認識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³⁷⁾는 주장은 특히 圖書館學科 敎授들에게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믿는다.

V. 講座의 目標와 內容構造

1. 講座의 目標

한 講座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問題는 根源的으로 그 講座의

(37) 신숙원, *op. cit.*, pp.18-19.

目標에 관계되며 附次的으로는 그 講座의 分化內容에 관계된다. 즉 教育內容은 目標達成을 위한 具體的인 學習經驗들로 構成된 것이며 講座의 分化內容은 教育內容의 分化를 意味하게 됨으로 目標設定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目標設定을 위한 前提로서 講座의 分化에 대해 먼저 論議가 있어야 할 것이다.

圖書館 및 資料利用指導에 오리엔테이션, 편람과 시청각자료를 통한 講義特講, 正規教科目化하는 등의 方法과 課程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文獻調査法을 正規教育課程化 했을 경우에도 必然的으로 講座의 分化問題가 대두된다. 이것은 文獻 및 情報의 世界에 도달하는 것이 한 學期의 教育만으로서는 不充分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利用해야 할 資料와 情報의 數가 多種, 多樣하고 이들은 저마다 特性을 지니고 있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情報의 類型이 다르기 때문이며 각종 基本的인 參考圖書의 特性을 파악하고 다양한 主題分野의 主要 參考文獻에 대한 知識을 習得하는 일이 한 學期의 講座時間으로는 도저히 不充分하기 때문이다.

課程分化의 또다른 한 理由는 教育의 內容은 被教育者의 水準의 差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점이다. 즉 大學의 新入生과 2학년 학생들에게 필요한 文獻調査能力和 上級學年에서 필요한 文獻調査能力은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原理에서 Neal Harlow는 教育의 水準은 大學 2年制, 水準, 4年制 水準, 그리고 그 이상의 研究課程 水準의 세 等級으로 나누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였다.⁽³⁸⁾ 또한 미국의 Hurt는 일찌기(1936년) 文獻調査法 教育의 分化를 豫見하고 利用指導의 範疇속에 포함될 內容을 세 가지로 要約하였는데 첫째는 광범한 주제분야에 있어서 情報探索能力을 길러주기 위한 圖書館的 方法⁽³⁹⁾과 一般的인 書誌類에 대한 知識, 둘째는 主題別書誌의 利用能力, 셋째는 깊이있는 研究方法을 구사할 수 있는 能力이라고 하였다.⁽⁴⁰⁾ Hurt의 提案은 Neal Harlow의 教育水準區分과 脈을 같이 한다고

(38) 李英子, "美國大學圖書館利用指導의 發達." 圖書館學論集 3. 1976. p. 20.

(39) Hurt가 말하는 圖書館的 方法(library methods)이란 圖書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情報의 探索方法을 意味한다.

볼 수 있다.

被教育者の水準과 文獻調査 要求度에 따른 教科內容의 段階的 分化는 대체적으로 두가지 課程으로 나누는 것이 合理的이라 보여진다. 그 첫번째의 段階는 大學入學時의 圖書館과 資料利用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다친 다음의 1學年 2學期 過程과 2學年을 對象으로 하는 文獻調査法을 위한 入門 課程(introductory course)이 된다. 두번째의 段階는 3.4學年 學生을 受講 對象으로 하는 專門課程(advanced course)으로서 主題別書誌가 될 수 있다. 主題別書誌課程은 受講學生들의 專攻教育水準과 分野를 고려하여 單一教科 目이 아닌 分野別教科目이어야 한다. 즉 文科系統의 學生들을 위해서는 人文科學書誌, 社會系學生들을 위해서는 社會科學書誌, 그리고 自然科學系列 學生들을 위해서는 自然科學書誌(또는 科學技術書誌)의 세 課程으로 分化되 어야 한다는 점이다.

專攻課程의 分化를 통해 學生들은 자신이 전공하는 主題分野와 또 인접한 主題分野의 特定한 專門資料와 情報를 探索하는 方法과 文獻에 대해 精通하게 될 것이며 學生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特定問題의 解決과 研究內容을 資料와 연결시키는 면에서 熟達하게 될 것이다.⁽⁴¹⁾

國內의 경우, 1975年 이내 들곳 文獻調査法 講座를 開設해 온 西江大學에서 講座分化의 必要性을 認識하고 1984學年度부터 主題別書誌를 開設할 예정으로 있어 그 推移와 效果에 대한 結果가 注目된다.

講座의 分化여부가 결정되고(教育課程을 구성하고) 실제 運營할 段階에 이르러 부딪치는 제일 중요한(우선적인) 질문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서 '어떤 教育目標을 達成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先行되어야 한다.

(40) Hurt, P. "Teaching the use of libraries." *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Proceedings*. Vol. 13, 1936. pp. 24--28. quoted from Givens, Johnnie. "The use of resources in learning experience" In: *Advances in Librarianship*, ed. by Molvin J. Voigt Vol. 4, N. Y., Academic Pr., 1974. p. 154.

(41) 이러한 分化된 課程에 있어서 學生들이 어떠한 學習經驗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Knapp, Patricia B. "A suggested program of college instruction in the use of library" *Library Quarterly*, Vol. 26, Jul. 1956. pp. 22--4231.

教育學者 Tayler의 教育課程類型에 의거하면 “教育目標는 教育課程의 循環過程에서 가장 먼저 決定되어야 한다는 뜻에서만 아니라 그 이후의 節次를 위한 基準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도 가장 중요한 要素가 된다”(42)고 했다. 이어서 그는 “教育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改善하는데는 어떤 目的을 追求할 것인가에 대한 見解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教育目標는 資料를 選定하고 內容을 결정하고 授業節次를 開發하고 試驗問題를 準備하는 基準이 된다. 教育프로그램의 모든 측면(學習經驗의 選定과 組織 및 學習指導 등)은 사실상 基本的인 教育目標를 達成하는 手段이 된다”(43)고 했다.

따라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할 경우의 ‘무엇’은 일반적으로 教育內容에 해당한다고 할 것 같으면 ‘目標’는 그 教育內容을 手段으로 하여 이룩하여야 할 마지막 指向點이 된다.

學生들이 한 教科를 이수한 후 도달해야 할 指向點은 學生들이 그 教科를 이수하기 전의 內容理解 및 行動과 이수하고 난 후의 ‘內容과 行動의 變化’의 差異라고 볼 수 있다. 教育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반드시 어떤 結果를 나타내도록 目標가 陳述되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內容’은 하나의 價値基準으로서 教科內容의 要約이 될 것이며 ‘行動’은 學習者が 目標를 달성했다는 구체적인 證據 즉 ‘操作과 實演’으로서 評價의 주요 基準이 된다.

그러면 文獻調査法の 教育目標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文獻調査法 講座의 教育目標로서 비교적 初期에 提示된 Patricia Knapp의 見解는 “① 情報의 源泉으로서의 圖書館의 價値에 대한 認識, ② 參考資料의 性質 및 機能에 대한 理解 ③ 書誌的 道具 즉 圖書, 定期刊行物, 政府刊行物의 特性과 機能에 대한 理解, ④ 問題解決을 위한 段階로서의 文獻探索技術의 理解, ⑤ 각종 圖書館資料의 選擇과 探索能力(44)을 教育目標로서 提示했다. 그러

(42) 李拱雨. 教育課程探究. 서울, 博英社, 1981. p. 33.에서 再引用.

(43) *loc. cit.*.

(44) Knapp, Patricia B. *op. cit.*, p. 226.

나 Knapp의 目標은 이 講座에서 다루어 나가야 할 段階들의 要約에 불과하고 包括性和 長期性이 결여된 듯이 보이며 敎科目에 대한 哲學的 基盤이 表現되어 있지 않다.

한편 이 分野의 標準的인 教材를 開發하여온 Jean K. Gates는 “圖書館 利用에 있어서의 能力은 態度和 知識과 技術의 結合體이다. 이것은 우리의 文化遺産과 日常生活에 있어서 圖書와 圖書館에 대한 認識과 이들을 利用하고자 하는 慾望과 圖書館이 提供하는 모든 資料들에 대한 知識과, 이러한 資料들을 探索하고 選擇하고 利用하고 記述하며 評價하는데 있어서의 技能의 發展에 달려 있다”(45)고 目標를 陳述하였다. Gates의 目標陳述은 教育 目標에서 提示되어야 할 要素로서의 包括性이나 長期성과 意味(哲學的 基盤) 및 學習者의 行動方向등이 비교적 간략하게 表現되어 있다.

Gates의 目標陳述과 本考의 I, II章에서 分析的으로 論議된 講座의 性格을 토대로 目標를 設定해 보면 ‘自律學習과 生涯教育의 成就를 위해 研究·調查活動과 特定한 論題를 해결하는데 적합한 文獻과 情報를 學習者 스스로 調查·探索할 수 있는 方法과 技能의 熟達’에 들 수 있다. 이러한 目標의 陳述은 講座의 哲學的 基盤를 表現하는 同時에 包括性和 長期性을 띠고 있으면서 學習者들이 이룩해야 할 學習經驗이나 行動의 變化까지도 內包하고 있다.

2. 講座의 內容構造

教育內容은 이미 設定된 教育目標를 達成하기 위하여 學習者에게 學習시키고자 하는 ‘어떤 意圖’ 다시 말하면, 教育目標의 具體的인 表現으로서 學習者가 學習할 內容이다. 設定된 教育目標의 達成은 教育內容의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 즉 最高水準의 教育目標를 達成하기 위해서는 教育內容의 選定이 가장 적절해야 한다. 또 이러한 이유에서 그동안 많은 學者들에 의해

(45) Gates, Jean K. *Guide to the use of Books and Libraries*, 4th, ed. N. Y., McGraw-Hill, 1979. p. Xi

보다 나은 教育內容을 選定하기 위한 여러가지 方法이 試圖되었다.

이들 方法가운데는 現存하는 教科書의 內容을 分析하며 選定하는 教科書法, 人間生活에 필요한 活動內容을 學習經驗으로 選定하는 活動分析法, 學習者가 社會構成員으로서의 機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內容을 學習經驗으로 選定하는 社會機能法, 學習者의 學習意慾을 中心으로 內容을 選定하는 青少年慾求法 등이 있으나 이들은 어느 정도의 結合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⁴⁶⁾

最近에는 問題領域法이란 새로운 內容選定方案이 응용되고 있다. 이 方法은 個人的 發達과 成長은 環境과의 相互作用에서 이루어지는 이상 그 相互作用을 이루는 場이 곧 學習者가 成長 發達하는 場이니만큼 그것이 學習經驗으로 選定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⁴⁷⁾

이러한 內容選定の 一般的 論理위에서 본다면 文獻調査法の 教育內容은 研究調査活動과 이러한 活動의 代表的 支援機關인 圖書館과의 相互關聯性속에서 說明되는 것이 당연하다

正規教科目으로서 圖書館教育을 실시하고 있는 西江大學校의 1983年의 教授要目에서 提示된 內容의 範疇는 1) 圖書館概論; 大學圖書館의 機能과 組織. 2) 圖書館資料利用; 著者·書名目錄, 主題目錄. 3) 目錄의 排列方法. 4) 圖書分類法. 5) 論文作成法; 主題選定 形成. 6) 見學. 7) 資料의 種類와 利用法. 8) 參考資料; 書誌와 索引 其他參考資料. 9) 定期刊行物 利用法. 10) 特殊資料의 利用法 등으로 되어 있다.⁽⁴⁸⁾

한편 미국의 UCLA 에서 개설되어 있는 이 科目의 教育內容은 1) 緒論. 2). 見學. 3) 書庫 4) 카드目錄; A. 著者·書名 B. 主題. 5) L. C. 分類法. 6) 辭典. 7) 百科事典. 8) 年鑑. 9) 地圖帖. 10) 定期刊行物 索引. 11) 構成의 要約. 12) 傳記事典. 13) 팜플렛. 14) 聽覺資料室. 15) 指定圖書室. 16) UCLA 目錄과 學科計劃. 17) 書評情報源. 18) 新聞索引. 19) 마이크로

(46) 金鳳守, 教育課程. 서울, 學文社, 1982, pp. 201—205.

(47) *Ibid.*, p. 208.

(48) 1983學年度 2學期에 提示된 Syllabus 에 의함.

資料. 20) 校內 他圖書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⁴⁹⁾

이 兩大學의 教育內容이 어떠한 原理에 의거하여 構成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文獻調査法을 위한 學習經驗의 主된 場으로서의 圖書館과 不可分の 關係를 짓고 있음이 명백하며 西江大의 '論文作成法'과 UCLA의 '構成要約'과 'UCLA 目錄과 學科計劃'이란 中間構造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內容과 段階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UCLA의 경우 內容構造面에서 볼 때 論理性이 缺如된 느낌을 배제할 수 없다. 즉 同一하거나 유사한 內容을 묶어 하나의 單元으로 삼고 이것을 다시 課目(lesson)과 主題(topic)로 細分시켜 展開하는 形成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Gates가 제시한 教育內容은 오히려 相對的이다. Gates는 이 講座에서 이룩해야 할 基本的인 內容을 1) 歷史와 日常生活에 있어서의 圖書館과 資料의 重要性 및 發展에 관한 知識 및 그들을 利用하고자 하는 慾望의 認識. 2) 大學圖書館의 目的과 資料의 種類 및 그 실제적인 排列과 構成에 대한 認識. 3) 圖書館利用을 위한 補助手段으로서의 分類體系의 一般的 概念. 4) 카드目錄의 目的과 기재사항이 學生들에게 주는 意味 및 이것의 活用方法. 5) 目錄을 떠나서 資料를 調査하는 方法. 6) 一般 및 主題分野 基本參考資料의 類型과 活用法. 7) 印刷된 書誌의 資料의 利用經驗. 8) 研究 Notes의 作成, 書誌의 作成, term papers와 研究論文을 위한 脚註作成의 經驗. 9) 주어진 主題를 發展(展開)시키거나 주어진 問題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資料의 種類를 決定하는 能力. 10) 다양한 情報源을 活用하는 것의 重要性에 대한 認識⁽⁵⁰⁾등의 10가지 要素로 나누었다. 이들 要素는 대체로 講義가 進行되는 過程別로 나타낸 것으로서 講座의 哲學的 基礎도 部分的으로 포함하고 있고 論理性이나 系列性도 具現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상 論議된 몇가지를 綜合하고 이 分野의 教材로 開發되어 있는 前述한 Gates의 著書와 申肅媛·李淳子 教授의 著書⁽⁵¹⁾를 參考로

(49) Dudley, Miriam. "Teaching library skills to college students" In: *Advances in Librarianship*, ed. by Melvin J. Voigt. Vol.3. N.Y., Seminar Pr. 1972. pp.97-102.

하여 文獻調査法에서 다루어져야 할 學習經驗을 例示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内容構造의 例示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要素를 前提로 삼았다.

첫째, 文獻調査法 講座의 주된 學習對象으로서의 資料와 이를 選別·蒐集하고 活用 가능한 상태로 秩序를 부여하는 代表的 機關으로서의 圖書館을 주된 學習經驗의 場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을 할 줄 안다’는 行動의 結果를 나타내도록 하는 技術的 知識(Knowing-how)과 ‘~라는 것을 안다’는 行動속에 內包된 價値를 實現시키도록 하는 命題的 知識(Knowing-that)의 두가지 相反된 價値를 同時에 具現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셋째, 文獻調査法에 관련된 知識의 構造를 體系있게 論理的으로 構成되어야 한다. 즉 學習者 스스로 情報과 文獻을 探索하는 方法을 體系的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順序와 系列에 따라 配列하며, 이를 다른 關聯學習과 統合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原理에 立脚해서 内容構造를 設定하고 個別的 目標과 다루어져야 할 内容을 例示하던 다음과 같다.

I. 文獻調査法の 意義

文獻調査法の 意味, 必要性, 目標등을 大學教育의 目標과 特性, 특히 自律學習 및 課題學習과의 相關性下에서 說明한다. 또한 本講座에서 얻을 수 있는 예상效果를 설명함으로써 學習動機를 유발케 한다. 이 部分은 本講座의 緒論으로서 理念的 基礎가 된다.

II. 文獻調査와 大學圖書館

大學圖書館의 서비스活動内容이 個人的인 文獻調査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 가를 이해한다. 즉 大學圖書館에서 이루어지는 業務의 概要를 理解함으로써 學習者의 특정 情報의 要求가 어떤 部署에서 充足될 수 있는가 를 알게 한다.

(50) Gates, Jean K. *op. cit.*, pp.xi-xii.

(51) 申滿媛, 수희子. 圖書館과 資料의 活用法, 서울, 한국도서관학회, 1980. p.274.

內容：受書，整理，貸出，參考業務，指定圖書制度와 主題別 閱覽制度，相互協助와 情報서비스 機關의 利用 및 Database 와 On-line 검색등을 포함한 特殊서비스 活動.

Ⅲ. 資料의 類型과 特性

多種 多樣한 資料의 類型과 各 特性을 理解함으로써 이들을 活用할 수 있는 方法과 이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情報의 內容을 알게 한다.

內容：一般圖書，連續刊行物과 政府刊行物，小冊子類，特殊資料， 마이크로資料，視聽覺資料，參考資料 등의 特性과 利用方法.

Ⅳ. 目錄을 통한 文獻調査法

大學圖書館의 연합용目錄을 통해 特定한 文獻에 접근하기 위해서 分類體系의 一般的 概念과 카드目錄의 內容 및 그것의 意味에 대해 理解한다.

內容：分類體系에 대한 一般的 概念과 藏書體系의 現狀，請求番號，主要分類表의 概要，카드목록의 目的과 構成要素，카드목록의 種類와 排列 및 접근방법.

Ⅴ. 基本參考資料

特定한 文獻과 文獻속에 內包된 개별적인 情報를 探索해 내는데 필요한 基本的인 參考資料들에 대한 知識을 쌓는다. 參考資料를 選定，利用하는 經驗은 目錄을 통하지 않고 주어진 論題와 問題를 解決하는데 必要하다.

內容：書誌，索引，抄錄，目錄등 二次資料와 辭典，百科事典，人名情報源，地名情報源，統計類，年鑑，便覽，名鑑등의 意義，種類와 特性，代表的인 情報源들의 소개，主題別書誌一般.⁽⁵²⁾

Ⅵ. 論文作成과 文獻調査

課題論文이나 卒業論文등에 있어서 主題를 展開하고 特定問題를 解決하는 方法을 터득케 하며，書誌의 參照形式에 대해 理解한다. 이 課程은 앞

(52) 申庸媛, 李淳子의 著書와 Gates의 著書에서는 主題別 參考文獻에 대한 전반적 소개를 포함시키고 있으나 講座의 性格上 現場經驗이 존중되어야 하므로 1學期의 講座로서는 이들 모두를 소화시키기가 現實的으로 어렵고 低學年을 위한 敎科內容으로는 부적합함이 사실이다. 이 部分은 이 講座가 分化되었을 경우 主題別로 深化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에서 教育한 많은 學習經驗들이 綜合的으로 活用된다.

內容：論文의 意義와 種類, 論文作成의 方法과 節次, 關聯資料의 探索과 蒐集의 方法, 脚註와 參考文獻形式의 作成經驗.

Ⅵ. 結 論

이상에서 文獻調査法 講座의 教育目標과 內容構造의 設定에 관한 諸問題를 考察한 마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文獻調査法이란 用語는 종래 사용되어 오던 「圖書館利用法」 및 유사한 用語들에 대한 새로운 概念으로서 文獻에 관한 情報 혹은 文獻속에 內包된 情報를 探索하기 위해 組織的으로 調査를 進行시키는 方法과 技能을 學習者 스스로 터득하도록 하는 하나의 教育課程을 말한다.

이러한 體系的인 文獻調査法의 教育은 오늘날 大學教育에서 이루고자 하는 課題學習과 自律學習을 위해 必要하다. 즉 課題學習과 自律學習의 効果적 실행은 급진적으로 증가되고 多樣化되는 情報와 知識을 體系的으로 수집하여 活用할 수 있는 能力의 培養을 前提로 하기 때문에 學生 스스로 주어진 問題에 대해 判斷하고 調査하며 解決하는 過程을 통해서 이러한 教育目標은 자연히 이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教育은 一時的이거나 斷片的인 것으로는 效果가 없고 體系的인 教育 즉 教養科目으로서 正規教育課程化하는 것이 最善의 方策임이 II A章에서 立證되고 있다. 正規教育課程으로서 이 科目의 開設은 國內의 경우 1975年の 西江大學을 시초로 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7個大學에서 개설되어 그 實効性이 論證되고 있다.

이 講座가 正規教科目化되어 教育될 경우 教育目標은 ‘自律學習과 生涯教育의 成就를 위해 研究調査活動과 特定한 論題를 해결하는데 적합한 文獻과 情報를 學習者 스스로 調査, 探索할 수 있는 方法과 技能의 熟達’에 들 수 있다. 이 目標의 設定은 講座의 哲學的 基礎를 表現하는 同時에 包括성과

長期性을 띠고 있으면서 學習經驗과 이수후의 行動의 變化도 內包하고 있다.

이러한 教育의 目標을 達成하기 위한 教育의 內容構造를 設定하는 때에는 技術的 知識과 命題的 知識의 두 價値를 同時에 具現할 수 있어야 하고, 學習對象으로서의 資料와 學習經驗의 場으로서의 圖書館과의 相互關聯性 속에서 行해져야 하며, 知識의 構造를 體系的 論理的으로 構成하여야 하는 등의 세 要素가 前提되어야 한다.

이러한 原理에 따라 設定된 內容構造의 概要와 個別的 目標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本 講座의 緒論으로서 文獻調査法의 意味, 必要性, 目標 등을 大學教育의 目標와 特性, 특히 課題學習과 自律學習의 相關性下에서 說明한다.

둘째, 大學圖書館의 서비스活動內容이 個人的인 文獻調査와 어떤 關聯性을 가지는가를 理解한다. 즉 學習者의 特定情報要求가 大學圖書館의 어떤 部署에서 充足될 수 있는가를 알게 한다.

셋째, 多種·多樣한 資料의 類型과 各 特性을 理解함으로써 이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情報의 內容을 알게 한다.

넷째, 大學圖書館의 열람용 목록을 통해 特定한 文獻에 접근하기 위해서 分類體系의 一般的 概念과 카드目錄의 內容및 그것의 意味에 대해 理解한다.

다섯째, 目錄을 통하지 않고 特定한 文獻과 文獻속에 內包된 個別的인 情報를 探索해 내는데 필요한 基本參考資料들에 대한 知識을 터득한다.

여섯째, 課題論文이나 卒業論文作成時 主題를 展開하고 特定問題를 해결하는 方法을 터득케 하며 書誌의 參照形式에 대해 經驗케 한다.

參 考 文 獻

姜富弼. 韓國大學圖書館學科의 教育課程에 관한 研究. 서울, 高麗大教育大學院, 1970.
(碩士學位論文)

강혜영.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의 利用指導에 관한 研究.” 도서관, 256號(1981.10)
pp. 34—44.

- 권문성. 大學에서의 圖書館教育 프로그램에 관한 研究. 서울 이화여대 大學院. 1980.
(석사학위논문)
- 金鳳守. 教育課程. 서울, 學文社, 1982. p.363.
- 金丙柱. “大學圖書館 利用教育에 관한 小考” 圖書館學論集 9집. 1982. pp.33—62.
- 羅誠實. 大學敎養過程에서의 圖書館教育의 必要性에 관한 研究. 서울, 연세대教育大
學院, 1973. (석사학위논문)
- 申肅媛. “圖書館과 文獻利用指導 : 大學正規科目으로서의 必要性.” 도협월보. Vol.18,
No.1, (1977). pp.14—19.
- 申肅媛, 李淳子. 圖書館과 資料의 活用法.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80. p.274.
- 安永柱. 대학에 있어서 大學圖書館奉仕의 効果에 관한 研究. 서울, 延世大學校 大學
院, 1965. (碩士學位論文)
- 李英子. “美國大學圖書館 利用指導의 發達” 圖書館學論集 3집 (1976). pp.51—78.
- 李洪雨. 教育課程探究. 서울, 博英社. 1981. p.343.
- Clark, V. “Teaching students to use the library: whose responsibility?” *Col-
lege and Research Libraries*, Vol.21, 1960. pp.369—372, 402.
- Dudley, Miriam. “Teaching library skills to college student” In: *Advances in
Librarianship*, ed. by Melvin J. Voigt. Vol.3, N.Y. Seminar Press, 1972.
pp.83—105.
- Gates, Jean. K. *Guide to the Use of Books and Libraries*, 4th ed. N.Y., Mc-
Graw-Hill, 1979. p.292.
- Givens, Johnnie. “The use of resources in the learning experience” In: *Advan-
ces in Librarianship*, ed. by Melvin J. Voigt. Vol.4. N.Y., Academic Press,
1974. pp.149—174.
- Henning, P. A., and Stillman, M.E. “Intergrating library iustrction in the
college curriculum.” *Drexel Library Quarterly*, Vol.7, 1971. pp.171—378.
- Hernning, P. A., and Shapiro, J. “Library instruction: methods, materials,
evaluation” *Drexel Library Quarterly*, Vol.8, 1972. pp.219—365.
- Hurt, P. “Teaching the use of libraries.” *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Proce-
dings*, Vol.13, 1936. pp.24—28.
- James, A.E. “Freshman and the library.” *Wilson Library Bulltin*, Vol.15,
1941. pp.403—407.
- Josey, E.J. “Role of the college library staff in instruction in the use of the
library”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ol.23, 1962. pp.492—498.
- Knapp, Patricia B., “A suggested program of college instruction in the use of

- the library" *Library Quarterly*, Vol. 26. July, 1956. pp. 224—231.
- Lancaster, F. W. "User-education: the next major thrust." *Education for Librarianship*, Vol. 11, 1970. pp. 55—63.
- Lubans, John. "Evaluating library user education program." *Drexel Library Quarterly*, Vol. 8, July 1972. pp. 325—343.
- Melum, V. V. "Library instruction in a University" *Illinois. Libraries*, Vol. 51, 1969. pp. 211—221.
- Melum, V. V. "A survey to aid your fall planning: Library Orientation in the college and University." *Wilson Library Bulletin*, Vol. 46. 1971. pp. 59—66.
- Palmer, M. C. "Academic library instruction—problems and principles." *Tennessee Librarian*, Vol. 25, No. 1, 1973. pp. 11—17.
- Phipps, B. A. "Library instruction for the undergraduate."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ol. 29, 1968. pp. 411—423.
- Revill, D. H. "Teaching methods in the library." *Library World*, Vol. 71, 1970. pp. 243—249.

A Study on Content Structure of Literature Search Methodology

Kim, Jeong-Soh · Park, Joon-Shi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educational literature search methodology, objectives and the content structure of a course in *bibliography*. The conten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concept and domain of literature search methodology, which has traditionally gone by the name of a guide to use of literature and library, are described.

2. The need of incorporating the methodology into regular college curriculum was investigated in view of the ideology of college education.

3. The background, process, and current status of offering a course in the methodology as a part of regular college curriculum were examined.

4. The educational objective of a course in the methodology was set at the successful activities in self study, life-long-education, and special topic research.

5. Considering the fact that technical knowledge and propositional knowledge should be realized simultaneously, that educational experience should go hand in hand with materials and library, and that

knowledge should be constructed systematically and logically, the content structure of the methodology were divided into the following six categories:

- a) the significance of the methodology of literature search
- b) the college library and the activities of literature search
- c)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 d) literature search by catalog
- e) explanation of basic bibliography
- f) researsa and literature search